아조염료 사용제품 수입금지 연기

독일, 96년 3월말까지 … 유통기한은 9월30일까지

독일정부가 아조(Azo)염료를 사용한 일용품에 대한 수입금지시한을 재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독일연방 보건성은 최근 아조염료사용 일용품에 대한 표준검증절차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아조염료사용 일용품 수입금지 시한을 7월1일에서 96년 3월31일까지로, 독일 유통기한을 96년 9월30일까지로 각각 9개월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아조염료 검증절차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안료에 포함된 아조와 외의류는 인체 간접접근성을 이유로 각각 오는 98년 3월말과 99년 3월말까지 수입이 허용되고 유통도 각각 동년 12월31일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아조염료도 가공된 폐의류를 재생한 재생직물에 대한 수입규제나 중고일용품의 수입금지는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으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관계로 오는 99년말까지 수입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독일연방 보건성의 결정사항은 7월중순 독일연방상원에서 식품·일용품법 제4차 개정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아조염료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관련업계는 아조염료사용 일용품 수입금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이번 독일의 수입금지조치 연기가 대독일 섬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독일의 대형 의류기업들은 제품의 차별화를 겨냥, 그들 제품이 아조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국산 섬유류 수출의 대부분이 이들 대형 의류기업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94년 우리나라의 독일 섬유류 수출은 4억7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Otto, Quelle, C7A, Steilmann 등 대형 의류유통기업들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Steilmann의 경우 자사제품이 무공해 섬유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공정개선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아조염료사용 일용품에 대한 수입금지시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아조염료 사용금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섬유수출 구조상 이같은 바이어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섬유·의류·피혁·모피 등 일용품을 독일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적어도 96년 3월말까지는 아조염료를 생산해 수출할 수 있다.

<화학저널 1995/7/3>